

친환경 수소자동차 민간 보급

전주시, 올해 80억원 투입해 총 227대 보급키로 수소차 1대 가격 약 7000만원 중 3650만원 지원

대한민국 수소선도도시인 전주 곳곳에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친환경 수소자동차를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시는 올해 약 200여 대의 수소승용차를 민간에 보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해 약 80억원을 투입해 총 227대의 수소승용차를 민간에 보급하는 '수소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소차는 매년 대신 깨끗한 공기와 물만 배출되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주시는 지난 2019년 수소이용·홍보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법인 등에 수소차 1대 가격인 약 7,000만원의 절반 가량인 3,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은 2년이다.

신청자격은 30일 이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전주시

역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등으로 세 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차량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의 경우에는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다. 신청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구매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자동차 영업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수소경제탄소산업과(063-281-2723) 또는 차량 제조·판매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시지역에는 현재 250여 대의 수소차가 운행 중으로, 시는 올 연말까지

민간 보급이 완료되면 약 500여 대의 수소승용차가 전주를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수소차의 민간 보급량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송천동 공관장과 양묘장을 오가는 103번 노선에서 수소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 15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전주를 누빌 수 있도록 교체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주행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수소차 민간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차량의 총전은 송천 수소충전소(덕진구 동부대로 1275)나 완주봉동 수소충전소(완주군 봉동읍 문산리 951-6)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삼천동 버스회차지도 수소충전소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학습필요계층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전주시평생학습관, 노인·장애인 등 위한 지원사업 참여 기관·단체 15곳 모집

전주시가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오는 22일까지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학습필요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1년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평생교육기관·단체 15곳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학습장소를 확보한 평생학습기관·단체가 10명 이상 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5회에 걸쳐 진행하면, 시가 감사비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문화예술, 공예, 미술, 건강, 음악,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기관, 문화의 집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모집 후 선정된 기관에 각각 120만원의 감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평생교육기관·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주시 평생학습관(e.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덕진구 구충목로 11) 또는 이메일(kagus3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9일 선정된 평생교육기관·단체를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다음 달 선정기관 관계자 및 감사들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전 계층이 배제되는 것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평생학습 강사들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 우울 극복 '맞춤형 마음치유' 강화

전주시보건소, 초기상담·척도검사로 위험군 3단계 선별해 프로그램 지원
기존 명상·원예·예술치유 방식에 감정코칭·심리극·영화치료 등 확대

전주시가 감정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감정코칭과 숨겨진 심리 문제를 풀어내는 심리극 등을 활용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증에 빠진 시민들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마음치유상담소(전주도시혁신센터 내)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초기상담과 척도검사를 통한 위험군을 경·중·고 단계로 선별해 맞춤형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명상·원예·예술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감정코칭 ▲심리극 ▲영화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질 예정이다.

시는 감정코칭을 통해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시민들의 우울증과 불안감, 분노, 두려움, 공포 등 부정적인 다양한 감정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주어진 역할을 통해 내적 갈등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풀어보는 심리극과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치료 프로그램인 영화치료도 진행된다.

특히 시는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민에게는 맞춤형 치유 프로



전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마음치유상담소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다.(전주시 마음치유대책반 출범식 모습)

그램과 함께 체계화된 사례관리와 의 료비 지원 사업을 연계해주시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는 1대1 상담과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힘든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마음치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빠진 의료진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마음치유 상담 전화(평일 주간=063-273-6995, 평일 주·야간 및 주말=1577-0199)를 상시 운영해 빈

틈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우울감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마음치유대책반을 출범시켰다. 마음치유상담소는 이후 현재까지 총 9496건의 상담을 진행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062건)과 비교해 약 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은 커지고 사람 간 접촉이 줄면서 시민들의 심리적 우울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만큼 2021년에도 마음이 건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연간 납부 자동차세 1월 한 번에 내면 9.15% 할인

전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소폭 감소했다.

시는 지난 11일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대상자에게 9.15% 세액 공제된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한 상태로, 신규 연납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

스 홈페이지(wetax.go.kr)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등록지 구청 사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사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주시 등록차량의 약 35%(인 11만6,397대(347억원))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했으며, 연납 후 중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용역근로자 125명 정규직 전환 완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1일자로 용역근로자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입사한 용역근로자 ▲시설 90명 ▲주차 23명 ▲경비 7명 ▲전산 4명 ▲통신 1명 등 총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시 면접 전형에 10%의 가점을 부여해,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공정채용원칙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북대학교병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 및 공개채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을 기반으로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진행 및 완료됐으며, 그 결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

및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공공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대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화합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